



김병숙
지음

2011 무화과

히말라야의 예수와 붓다



1. 우주인 예수를 만나다.
2. 21세기와 새복음
3. 가까워진 천국
4. 신과 우주와 인간
5. 해와 달이 된 오누이
6. 청소년과 지구의 미래
7. 증산과 아쉬타 사령관
8. 히말라야의 예수와 붓다
9. 이상한 나라의 지구
10. 특별한 시대를 살며
11. 밀빠진 그릇이었나

진
리
의
신

히말라야의 예수와 붓다

출간일 2018년 6월 30일

지은이 김병숙

발행인 김병숙

출판사 무화과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81-13

휴먼시아 동화마을 105-206

등록일 2018년 4월 3일 (등록번호:829-95-00580)

전 화 031-235-2547

E-Mail jesusufo2@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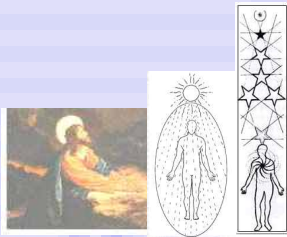
cafe.naver.com/jesusufo5

blog.naver.com/jesusufo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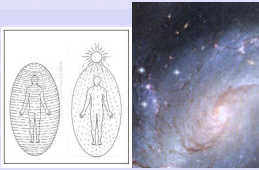
homepage jesu-ufo.com

© 무화과 2014년 5월

ISBN:979-11-87209-41-6



인류는 지금 유아기에서 벗어나려고 보채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제나 교사들은 저들을 교묘히 짜놓은 요람에 묶어두고 잠재우려고 과거의 환상이라는 자장가를 부르며 토닥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자는 울지도 않고 자장가에 잠들지도 않습니다. 이미 요람은 더 이상 자기에게 적합한 곳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지성과 영성을 자각하고 있는 호랑이는 다시 잠드는 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과거의 잘못된 신념에서 비롯된 고통을 경험하며 충분히 실망했고, 그래서 과거의 그릇된 신념의 편린들을 말끔히 쓸어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호랑이에게는 과거의 신념이 아니라 진리 자체에 근거한 보다 더 강하고 생명력있는 사고가 요구됩니다.



< 서문 >

아이작 뉴턴과 같은 시대에 역시 과학자로 살았던 스베든보리라는 스웨덴 사람이 있었다 한다. 그는 그 당시의 ‘접촉자’로서 무려 30년 동안이나 UFO와 수시로 만났고 그들의 세계에도 갔었다고 한다. 그가 보고 온 천국들은 3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가장 높은 천국은 아주 어려서 사망했기 때문에 악함에 물들지 않았던 영혼들의 세상이었다고 한다. 그 아래의 천국은 험한 세상에 살면서도 자기를 희생해 가며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선구자들의 천국이고, 또 그 아래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그 생전의 선행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는 천국이었다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3계층의 천국들 그 위에 최상위의 천국이 있었는데 그곳은 아직 비어 있는 상태라는 설명을 들었다 한다. 아마도 그곳은 3계층의 하늘나라 백성들이 지닌 모든 덕목들, 순수함, 선구자적 깨달음, 신앙인으로서의 봉사정신, 그 모두를 갖춘 성숙한 영혼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그리스도 사난다님이 언급한 ‘제3의 에너지’라는 단어도 같은 뜻을 포함하고 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그리스도 자아,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과 참자야는 영혼적 순수성과, 봉사정신과, 지성적 깨달음이 무르익었을 때 발현되는 신성과의 합일상태라고 한다. 그런 상태를 왜 제3의 에너지라 했는지 사난다님의 설명을 들어보자.

여러분의 영적 여정의 결말은 선과 악, 빛과 어두움이라는 2원성을 넘어선, 더 거대하고 월등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3의 에너지, 그리스도 에너지(성령)를 창조할 것이며, 그것은 양자(兩者)를 포용하고 초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들은 신의 영역을 확장시킬 것입니다.¹⁾

1) 은하문명 간 ‘2012 지구차원 대전환과 천상의 메시지들’에서 인용.

선과 악, 빛과 어둠이란 태양인들의 삶과 행성인들의 삶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태양인들은 개체의식이 아니라 전체의식과 집단주의로 살기 때문에 악이 발생할 여지가 없지만 행성인들의 삶은 개인주의와 개체의식으로 살기 때문에 악이 발생하는 것이다. **양자를 포용하는 제3의 에너지**,란 물질육체를 가지고 행성에 살면서도 태양인들과 같이 전체의식으로 살 수 있을 정도로 이기심과 개인주의를 극복한 인격에 도달한다는 뜻이다. 명상이나 묵상을 통해 성령과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5차원 유전자가 활성화되면서 육체적인 오라(Aura)도 상승하기 때문에 ‘에너지’라는 단어를 쓴 것이다. 사난다님의 다음 설명을 들어보자.

여러분의 정신능력과 과학기술을 훨씬 앞서있는 은하인들은 여러분처럼 느낌으로 살지 않고 오직 생명에 관한 연구와 지적 탐구를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신의 법칙을 받아들여 거기에 순종하지만 창조주가 여러분에게 부여한 사랑의 감정이 없이 단지 지성적으로 그 법을 따릅니다.

느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태양인들의 육체가 무감각의 육체이기 때문이고, 사랑의 감정이 없이 산다는 것은 이성에 대한 욕구가 없고 5감도 없는 육체라는 뜻이다. 고차원으로 갈수록 중성이거나 성구별이 아예 없는 생명체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풍부한 감성과 육체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은 가슴으로 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육체 안에 살면서도 어떻게 신을 사랑할 수 있는가를 그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도덕적 감성에 대해서는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요. 여러분에 대한 아버지신의 계획은 자유의지와 사랑을 느끼는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 우주의 이 지역에서 새로운 종(種)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²⁾

자유 의지란 에덴동산에서처럼 지혜를 금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사랑을 느낀다는 것은 1원성이 아닌 2원성, 즉 남/녀의 양성으로 산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실은 현재의 우리와 같이 감정과 감각을 지니고 살기 때문에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점과 불안전성들 이대로는 제3의 길이 열릴수 없다. 다만

2) 은하문명 간 ‘예수그리스도의 충격 메시지’에서 인용.

모든 구도자들의 목표인 구원/성령/해탈에 도달했을 때 비로서 제3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영혼들이 만든 세상이 곧 제3의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쉽지는 않은 길이지만 영혼적 측면과 육체적 측면에서 양자 모두를 포기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통합적 만족을 추구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제3의 길이요 제3의 천국을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주의 이 지역에서는 아직 성공한 케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종’이라고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길을 허락하신 것은 지구가 천사들과 그 후손에 의해 개척되었던 행성이기 때문이고 또 현재도 그만한 능력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를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신 판단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금지와 희망으로 지구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책제목에 ‘어머니 하느님’을 부제로 사용한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하느님’이 신의 권능이 아니라 신의 자비를 뜻하기 때문이다. 이제 인류학적으로나 종교 발전사에 있어서도 가부장적 시대는 지나갔다. ‘아버지 하느님’ 대신에 ‘어머니 하느님’을 알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개척과 투쟁의 시대를 거쳐서 21세기 문명을 건설했고, 이제 이 문명을 유지하며 한 단계 더 진화시키기 위한 화합과 평화의 시대를 건설해야 하는 것이다.

우주의 태초에 7분의 하느님들(엘로힘)이 계셨다고 한다. 그분들은 각기 특성을 가졌는데 그 중에는 사랑/아름다움의 특성을 가진 하느님도 계셨다고 한다. 7번째 대우주에서 우리 우주(네바돈 소우주)로 파견되신 주-임마누엘 대천사가 바로 그런 하느님에 해당될 것이다. 그분은 미카엘 대천사의 형님에 해당되는 혈통이며 미개한 행성들로부터 자신들이 승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분이라고 ‘유랜시아서’에서 소개했다. 이제 가부장적 ‘아버지 하느님’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어머니 하느님’의 자비를 배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책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2016 8월 16일

저자 김 병숙

(사용된 인용문과 조각그림의 저작권자와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차 후에 보상이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차례 >

1부 히말라야에서 만난 예수/붓다

- | | |
|-----------------------------|---------------------------|
| 1. 재림 예수와 붓다...../17 | 26. 세월과 시대를 뛰어넘는 교과서 |
| 2. 행간의 의미들 | 27. 아론과 멜기세덱 신권...../133 |
| 3. 에밀 대사와의 처음 만남 | 28. 모르는 게 약이다? |
| 4. 유체이탈과 성령의 씨앗 | 29. 완충지대와 하모니 합창단 |
| 5. 침묵의 사원과 오병이어의 기적...../34 | 30. 경계선에서의 여성의 역할 |
| 6. 아메리카의 뜻있는 출발 | 31. 고등자야는 왜 필요한가...../148 |
| 7. 에밀 대사의 마을에서 보낸 유월절 | 32. 이마에 받게 될 2가지 도장 |
| 8. 재림예수와의 만남 | 33. 두 개의 전투행성 |
| 9. 죽은 사람을 살리다...../54 | 34. 어마어마한 우주전쟁 |
| 10. 인간의 가능성과 책임 | 35. 황소/플레야데스 별자리...../160 |
| 11. 모세와 찬더 셴 | 36. 3-4차원 학교를 졸업할 때 |
| 12. 사자의 운명 | 37. 상징물과 지혜의 시대 |
| 13. 함께 나타난 예수와 붓다...../70 | 38. 화룡점정의 신대감각 |
| 14. 달빛 속의 합창과 종소리 | 39. 다음생 환생에 관하여...../173 |
| 15. 만물과 신적인 대원리 | 40. 총정리의 장 |
| 16. 연합 마적단의 침입 | 41. 자유의지와 자유선택 |
| 17. 마적단과의 결전...../90 | 42. '동쪽을 보라.' |
| 18. 두 가지 창조와 신인류 | 43. 함께 기뻐하기 위함...../188 |
| 19. 우주심(心)과 인간의 창조능력 | 44. 그날이 오면 |
| 20. 지구 태양계의 역사 | 45. 요한계시록과 생명의 책 |
| 21. 티벳의 수도 라싸로...../108 | 46. 예수의 21세기적 가르침 |
| 22. 회의론자와 예수의 만남 | 47. 오늘과 내일을 염려하며...../206 |
| 23. '어른'의 나타남과 두 여성천사 | 48. 마젤란 은하와 오스트렐리아 |
| 24. 나르시스 에코 에로스 | 49. 수퍼맨은 없다 |
| 25. 공간의 논리와 진화의 논리 | |

< 2부 붓다와 어머니 하느님 >

1. 임마누엘 대천사와 어머니 하느님

2. 어머니 하느님과 자유의 여신상
3. 불교는 무신론적 종교인가?...../229
4. 가치관적 혼란의 시대
5. 영혼의 여성적, 남성적 측면
6. 성리학과 21세기
7. 수퍼맨과 무위철학...../241
8. 고타마 붓다의 메시지
9. 정치적 이상주의의 한계
10. 가슴으로부터의 자비와 영적 연결
11. 불성과 어머니 하느님...../256
12. 마에트리아 대사와 일체유심조
13. 명상과 DNA
14. 우주의 근원과 블랙홀
15. 낙원의 회복과 감사...../271
16. 유교의 중용과 불교의 중관
17. 불교와 뉴에이지
18. 불교철학과 양자물리학
19. 문명적 전환점과 지혜...../286
20. 자아발견과 긍정적 사고
21. 자유의지와 그 열매
22. 부처님의 열반과 쿠시나가르
23. 이성에서 영성으로...../304
24. 감옥인가 학교인가
25. 자아도 욕구도 부정해야 하나
26. 여러 형태의 천국들
27. 인과론과 인과응보론...../324
28. 우주인들도 사랑하고 결혼한다.
29. '중용'과 인습타파
30. 죄의식은 미래를 창조할 수 없다.
- 31.不二라는 화두로의 회귀
32. 우주시대의 화두...../341
33. 인공지능과 안드로이드
34. 진화선상에서의 두 가지 자연도태
35. 상승이란 무엇인가?...../352
36. 백신과 스타시스
37. 세계적 문제들의 돌파구
38. 진화/순환하는 우주와 절대정신
39. '이상한 나라'의 실제상황...../366
40. 백개의 진열장과 호사다마
41. 다니엘이라는 이름
42. 컬링 경기와 중립국 행정
43. 호모싸피엔스/호모크리스투스
44.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384
45. 복희와 여와, 바람에 관한 이야기
46. 미드웨이어와 몬조론손 치안판사
47. 진화는 민주/자유/개인주의의 대안
48. 몬조론손 판사와 에녹서의 예언
49. 명상/묵상/참선의 실천기법...../401
50. 천국건설과 이상적 삶
51. 몬조론손 판사/미카엘 대천사께
52. 방탄소년단은 무슨 말을...
53. 육체적 진화와 환골탈태...../416
54. 이데아와 양자철학
55. 준비되어 있으세요
56. 예수의 21세기적 가르침
57. 호랑이와 나무꾼 이야기...../430
58. 가인과 아벨 이야기
59. 자유와 방종 사이에서
60. 스위치가 작동되기를 기다리며
61.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443
62. 상징물과 지혜의 시대
63. 화룡점정의 시대감각
64. 다음 생 그리고 환생에 관하여
65. 총정리의 장...../456

- 66. 자유의지와 자유선택
- 67. 동쪽에서 떠오를 태양
- 68. 함께 기뻐하기 위함
- 69. 그날이 오면...../473
- 70. 요한계시록과 생명의 책
- 71. 색즉시공과 멍때리기
- 72. 의심 불신에서 확신으로
- 73. 신성과 인간...../489
- 74. 감각적 삶에 대하여
- 75. 두개의 태양과 새예루살렘
- 76. 아카샤 세계와 지혜의 시대
- 77. 추락과 순교자의 길...../501
- 78. 구원/상승은 의식적 고양상태
- 79. 빛의 몸이란 어떤 것인가
- 80. 문제는 삶의 목표에 있다
- 81. 21세기적 개화기를 살며...../512
- 82. 유랜시아서와 지구의 운명
- 83. 끝맺음의 글



< 1 > 재림 예수와 붓다

'초인생활'이라는 책은 예수님이 이미 지구에 재림했음을 설명하는 책이다. 정창영 선생이 옮겼고 정신세계사에서 출판한 '초인생활'을 꼭 사서 꼼꼼히 읽어보실 것을 권하면서 다이제스트한 내용을 23회에 걸쳐 소개한다. 따라서 모든 인용문들은 정신세계사 간 '초인생활'에서 인용한 것임을 밝히며 글을 시작합니다.

초인(超人)생활(Life and teaching of the Masters of the Far East) 이란 책은 195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출판되었으나 이야기가 발생한 시기는 1894년부터다. 그러니까 19세기 말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다.

UFO를 만났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왜 예수님이나 혹은 여호와 하느님은 나타나지 않으시나 하고 무척이나 아쉽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분들은 1세기 전부터 지구인들과 접촉하고 있었던 것이다. 1830년대의 죠셉 스미스, 그리고 '보병궁 성서'를 쓴 리바이 도울링, 1894년의 미국 탐사대와 예수, 붓다님과의 만남, 1871년의 증산선생의 탄생, 그리고 1917년의 파티마 사건 등 등. 그분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해가는 지구 인류의 문명을 지켜보며 길잡이 역할을 개시했던 것이다.

'먼 동방의 지혜와 가르침'이라는 원제를 가진 이 책은 어느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의 공적 기관에서 파견한 탐사대의 탐사기록인 셈이다. 그러나 저자인 베어드 T. 스폴딩이란 사람과 그 일행이 모두 죽은 후에 공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탐사대가 수집했던 일체의 자료들도 미공개된 채로 기행문 형식으로 쓰여진 글이다. 사진자료가 결여된 것이 무척 아쉽긴 하

지만 내용으로 보아서 결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894년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우리나라에선 증산선생이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 세상을 유력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고, 동학이 민중운동으로 태동하기 시작한 바로 그해였다.

저자 스폴딩을 비롯한 11명의 탐사대는 주로 티벳의 사원에 보관되어 있다는 고문서나 고비사막에 있었다는 고대 도시의 흔적들을 찾아 출발한 탐사대였던 것 같다. 자세한 탐사목적은 밝히지 않고 지명도 인명도 가명을 쓰고 있지만 그들이 고고학 탐사대였던 것은 분명하다. 영국인 레이어드에 의해서 아씨리아와 바빌론 유적지가 발굴되었고 또 독일인 쉴레만에 의해 트로이 유적지가 발굴된 데에 자극받아 미국에서도 고대문명의 탐구에 착수했을 것이다. 인류는 자신들의 조상인 고대문명에 대해 눈뜨고 알고 싶어 할 때가 되었던 것이다.

그들이 탐사한 지역은 대략 캐시미르의 고산지대와 티벳의 고색창연한 사원들,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고비사막 지역이었다. 시발점은 인도였지만 그들의 목적지는 히말라야의 깊은 골짜기에 몸을 숨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대문서들을 간직하고 있다는 고색창연한 사원들이었다. 그 여정을 따라가 볼 참이지만 우선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대략의 개인적 장비는 챙겨야 할 것 같다. 살아계신 예수와 붓다를 만났다가 물위를 걷고, 공중부양을 하고, 순간이동을 하고, 사막에서 즉석 빵을 만들어 식량으로 삼고 하는 등의 초능력을 발휘하는 대사(Master)들을 만난다는 것은 무척이나 흥미로운 예기다. 그러나 이 책은 결코 흥미본위로 읽어넘길 수 있는 가벼운 책이 아니다. 그런 기대감만 가지고 떠난다면 금방 부담을 느끼며 도중하차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예수와 붓다다. 3년 반 동안에 있었던 예수와 그 주변 대사들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줄거리다. 그러나 더 많은 부분이 참자아를 찾아가는 종교적 가르침의 문장들로 채워져 있다. 그것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등의 낯익은 문장이 아니라 인간 모두가 초인이 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이 곧 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물론 인간 자신 속에

내재하는 신적인 본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부처님도 모든 인간은 부처가 될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그런 철학적 차원의 예기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초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류는 바야흐로 그런 경지에서 살아야 할 시대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2천 년의 세월이 흘러 과학문명이 만발한 시대가 되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초월적 경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는 너무나 감감하다. 과학적 발전과 영적 발전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일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예수님과 그 주변의 대사들은 아주 과학적으로 영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누구나 영적 삶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의 이야기들이다. 영적 세계의 신비를 설명하는 문장들임에도 불구하고 별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매끄러운 번역을 해주신 정창영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싶다.

초인적 삶이나 사고방식이 현대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비웃어 넘길 수도 있을 것이다.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시대가 아닌가? 그러나 과학이 해결해주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안고 있다.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문제조차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적 민족적 이기주의는 언제 세계대전 같은 참혹한 광장으로 인류를 몰아갈 지 알 수 없다. 게다가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은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행성까지도 파괴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것들이다. 초인적 삶이나 초인적 사고방식은 인도의 요가 수행자들이나 티벳의 밀교 스님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닌 것이다.

이 책은 지구인들의 철학적 자기성찰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인들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우주의 생성까지도 다루고 있다. 20세기의 지구인들이 우주의 일원으로써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주생성의 원리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예수님과 붓다님은 그 지역의 인류들을 상대로 가르침을 베풀었지만 19세기 말의 예수님과 붓다는 지구인 전체를 상대해서 가르침을 베풀고 있다. 예수니까 성경의 우수성을 강

조하고 붓다니까 불경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그런 논조는 물론 철저히 배격하고 있다.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은 아니지만, 오히려 성경의 어떤 부분은 히말라야의 고대사원 문서에서 베껴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그리스도교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시대적으로 앞섰던 타종교로부터 빌려온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교의 기본 요소가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인류의 가장 고귀한 이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책은 인류가 원래 하나에서 출발했던 것처럼 다시 하나로 돌아가야 할 시대가 도래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이 만나고 기독교와 불교가 만나는 인도를 활동의 중심지로 잡고 예수와 붓다를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또 이집트의 피라미트를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으로 인정하고 오시리스 신도 그 시대의 그리스도였다고 말한다. 어느 종교를 선호하거나 어떤 종교는 폄하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대한다면 이 책을 통해 인류에게 전하고자 하는 예수와 붓다, 그리고 대사들의 진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것이다.

또 이 책에서 인류 각자의 초월적 자아, 혹은 참자아에 눈뜨라고 강조하는 것은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인지시키기 위함인 것 같다. 그들은 교사이자 조연자일 뿐 지구인들의 자유의지를 좌지우지하려는 뜻은 없다고 한다. 뉴에이지 책들을 읽다 보면 아주 편한 생각을 하게 된다. 무한한 능력을 가진 우주인이나 혹은 신들이 나타나서 이 얽히고설킨 지구의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인류 모두가 자신 속에 내재하는 그리스도적 본성을 발견해서 그것을 개발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과 평화와 봉사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 커다란 물결을 이룰 때 괴롭고 고통을 주는 온갖 문제들이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너무 이상주의적인 것 같지만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의 탐사대를 인도한 대사가 자신의 이름을 '에밀'이라고 한 것도 이 책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에밀은 19세기의

불란서 사회학자이자 교육 이론가였으며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친자연주의를 주장한 루소의 작품 '에밀'과 같은 이름이다. 작품의 주인공 에밀이 다시 나타나 21세기의 지구인들에게 길잡이를 자처한다는 인상을 준다. 루소의 또 다른 저서 '민약론(民約論)'은 현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을 정도로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한다.

이 책 '초인생활'에 소개되고 있는 사건들과 이야기 줄거리도 20세기와 21세기에서 벌어질 중대사들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또 하나의 예언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20세기와 21세기를 살아갈 지구인들을 위한 교육서이자 안내서로서 이 책은 만들어진 것이다.

(다음 장에서 계속)



< 2 > 행간(行間)의 의미들

'초인생활'은 기독교인들이 읽기에는 좀 혼란스러운 책이다. 예수님을 주인 공으로 삼고 그 가르침을 주제로 삼고 있으면서도 성경의 일부 내용을 불신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저자 스폴딩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그들을 인도한 대사들이나 예수님의 견해라면,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작용했을 것이다. 첫째는 20세기에 들어 지구사회를 암암리에 지배하고 있다는 유대인들에 대한 좋지 않은 평판 때문이고 둘째는 모세5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 하느님의 과격했던 지도방법에 대한 현대인들의 반감 때문 일 것이다.

예수님이 지구에 다시 온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의 이번 목적은 결코 어느 종교를 옹호하기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 성경의 권위가 실추되었다면, 그것은 신들로부터 우수한 지능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선택되어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결과 20세기에 들어서는 과학계를 주도하고 세계경제와 정치의 중심에서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유대인 집단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그들 선택된 백성의 후예들이 제 몫을 다 해야 하는 시대이지만 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증산선생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목사가 믿는 하느님이나 중들이 가르치는 부처가 본래는 하나로되, 중생들을 잘못 인도하면 천지의 원주인(原主人)도 자리를 잡지 못한다.(도전 5편 10장 4절)

위의 말은 천지의 원 주인도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 아닌가?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느님에 대해서 말하는 유대교의 기록들이 무시



< 2 > 행간(行間)의 의미들

'초인생활'은 기독교인들이 읽기에는 좀 혼란스러운 책이다. 예수님을 주인 공으로 삼고 그 가르침을 주제로 삼고 있으면서도 성경의 일부 내용을 불신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저자 스폴딩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그들을 인도한 대사들이나 예수님의 견해라면,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작용했을 것이다. 첫째는 20세기에 들어 지구사회를 암암리에 지배하고 있다는 유대인들에 대한 좋지 않은 평판 때문이고 둘째는 모세5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 하느님의 과격했던 지도방법에 대한 현대인들의 반감 때문 일 것이다.

예수님이 지구에 다시 온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의 이번 목적은 결코 어느 종교를 옹호하기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 성경의 권위가 실추되었다면, 그것은 신들로부터 우수한 지능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선택되어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결과 20세기에 들어서는 과학계를 주도하고 세계경제와 정치의 중심에서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유대인 집단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그들 선택된 백성의 후예들이 제 몫을 다 해야 하는 시대이지만 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증산선생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목사가 믿는 하느님이나 중들이 가르치는 부처가 본래는 하나로되, 중생들을 잘못 인도하면 천지의 원주인(原主人)도 자리를 잡지 못한다.(도전 5편 10장 4절)

위의 말은 천지의 원 주인도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 아닌가?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느님에 대해서 말하는 유대교의 기록들이 무시

되어야 할 정도로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에서의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쓴 독일의 홀거 케르스텐이 캐시미르가 에텐동산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한 근거가 바로 이 책 '초인생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이 책의 행간(行間)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다. 예수님은 탐사대와와 접촉을 끝낼 때 웰든이라는 한 작가를 만나 의미심장한 가르침을 전한다. 웰든이란 사람은 홀거 케르스텐처럼 지성인이요 기독교인이었지만 성경의 내용들 뿐만 아니라 예수라는 인물이 정말 역사적으로 존재했는지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이었다. 그 웰든이라는 작가에게 예수님이 들려준 마지막 연설을 축약하면, 하느님의 신성의 빛은 어떤 물질도 그 물질의 핵까지 파괴해서 다른 물질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과 하느님은 지성적 접근만 가지고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예수님의 마지막 연설은 과학과 지성 그 이상을 믿지 못하는 현대의 지식인들을 향해 한 말씀인 것이다. 어떤 물질도 파괴할 수 있다는 그 말은 핵무기까지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의 말인 것이다.

또한 제일 마지막 장에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리쉬라는 대사가 유대인과 이스라엘인이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엄밀히 말해서 유대인이란 이스라엘 사람 전부를 가리키는 단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유대인은 그들의 조상 야곱의 넷째아들이었던 유다의 후손에 한한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그 마지막 장에 유대인의 정체를 명확히 하려 했던 이유가 무엇이이었을까? 유대교와 유대인들에 대한 세상의 부정적인 시각에 신경을 쓰며 이 책이 제작되었다는 증거가 아닌가? 또한 미국의 탐사대와 접촉한 대사가들이 20세기의 시대적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 아닌가? 즉 탐사대와 예수님이 만난 것은 19세기 말이었지만 그분들은 바로 오늘의 세계를 훤히 내다보며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 책에서는 기독교의 뿌리인 유대교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그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 같다. 그러나 유대교의 아버지인 모세에게 다른 옷을 입혀 등장시켰다. '인도에서의 예수의 생애'를 쓴 홀거 케르스텐은 그 점을 간과했기 때문의 행간(行間)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모세는 처음엔 이름이 없는 대사로 등장한다. 그러나 대사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대사로 등장하며 약속의 땅과 광야의 시련을 주제로 연설을 한다. 또 이 나이 많은 대사는 주로 탐사대가 고문서를 번역하는 일을 돕는다. 그러던 그가 죽은 후 다시 부활한다. 그런데 이 대사가 부활했을 때는 **찬더 센**이라는 동양식 이름을 가진 젊은이로 탈바꿈한다. 찬더 센을 한자로 옮기면 **찬도 선(讚道 仙)**이 된다. 도와 선을 찬양한다는 뜻이다. 찰이란 한자를 쓴다면 도와 선을 돕는다는 뜻도 된다. 그리고 찬도 센으로 부활한 그 노 대사의 또 하나의 역할은 고비사막에서 탐사대와 원주민의 언어를 통역하는 일이었다.

대사들은 무슨 목적으로 모세를 부활시켜 동양인의 이름을 주었으며 동양과 서양인 사이에서 통역하는 일을 하게 했을까?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느님과 모세를 통해 특별교육을 받은 선택된 백성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적으로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계속했으며 20세기와 21세기에서도 지구의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을 제사장 국가의 후보로써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찬도 선(讚道 仙)은 바로 증산 사상을 상징하는 이름인 것이다. 증산은 유불선(儒佛仙) 중에서 仙을 으뜸으로 생각한다 했고 그러나 무극대도(無極大道)를 지향한다 했다. 동서양을 아우른다는 뜻인 것이다. 또 대사들과의 만남이 끝날 무렵에 천사들의 합창과 함께 두 하늘의 여인을 대동하고 나타난 한 '어른'이 있었다. 그 어른은 동양을 상징하는 호랑이를 대동하고 나타났으며 그 풍채도 동양적이었다. 그 '어른'은 바로 증산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증산은 요한계시록 10장의 '힘센 천사'다. 미국의 탐사대가 예수와 붓다를 만나고 있던 그 시기(1894-'98년)에 증산선생도 한반도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대사들과의 마지막 만남에도 예수님이 몸소 나타났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말을 한다.

“여러분은 내가 부친 요셉과 함께 목수 일을 하던 소년 시절에, 신에게서 태어난 인간에게는 짧은 인생으로는 끝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음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나는 그 엄청난 내적인 깨달음을 얻은 후에, 오랜 기간 동안 오직 나 자신만 벗어나며 홀로 침묵의 은둔생활을 했습니다....”

위의 고백은 무엇을 말하는가? 홀거 케르스텐이나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소년예수는 인도에 가서 비로소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년 예수는 인도에 가서 '어린 성자 이사'라는 찬사를 들었을만큼 이미 내면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보병궁 성서'에서는 소년예수의 인도기행을 인정하면서도 위의 문구에서는 은둔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예수의 성장기를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대사들과 예수님이 인도 북부의 히말라야 산맥을 거점으로 삼은 것은 그 지역이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인도와 캐시미르 지역은 소년 예수의 사춘기와 청년기가 그 지역에서 있었고 또 부활 후의 삶이 그 지역에서 있었음을 알리기 위함일 것이다. 에덴동산이 어느 지역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양과 서양의 벽을 허물고 지구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일찍이 선택된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지구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끝내 수행하지 못할 것이기에 유대교의 역사마저 무시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웰튼이라는 불신의 작가를 등장시켜서 경고성 메시지를 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에 대한 불신은 옳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닌가? 단 성경이나 기독교 신앙에 대한 해석이 구태의연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예수님과 대사들이 히말라야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한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다. 그분들은 성경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태어나는 '어린양', 즉 '아기예수의 재탄생'을 고대하고 있다고 했다. '아기예수의 재탄생'은 바로 그분들 활동의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탄생은 동양에서의 탄생일 것이기에 활동의 중심지를 히말라야 산맥으로 잡았을 것이다. 이 시대는 동양의 지혜에 눈을 돌려야 하는 시대라는 뜻에서 책 제목도 '동양 지혜자들의 삶과 가르침'(Life & teaching of the Masters of the Far East) 이라고 정했을 것이다.



< 3 > ‘에밀’ 대사와의 처음 만남

이 책의 첫머리에서 저자 스폴딩은 붓다를 '진리에 이르는 길'의 표상으로 삼고 예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가 곧 깨달음'이라는 확신 하에 글을 쓴다고 했다. 기독교인 모두가 알다시피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 앞에 붙인 존칭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로써 오신 것은 우리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리스도성(性)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수도 붓다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에서 출발했다고 강조하는 것은 우리를 격려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옆드려 숭배하는 자의 자세를 털고 일어나 신의 자녀로서의 자존을 찾아 두발로 일어서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인간의 내면세계를 중심으로 다룬 책이기 때문에 반듯이 단행본을 사서 꼼꼼히 읽어보시길 권한다. 비현실적인 내면세계가 아니라 아주 과학적으로 설명된 내면세계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논리로 전개되고 있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영적 세계는 '진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다. 진동을 높이면 영적세계의 수준에 도달하고 진동을 낮추면 물질세계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대의 물리학은 물질의 최소단위가 입자가 아닌 파동으로 이루어졌다는 것까지 파악했다 한다. 파동론을 주장하는 양자물리학이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탐사대가 대사들과 예수님을 만난 그 직후부터였다.(20세기 초두)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탐사대가 대사들과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은 그후 수십년간 비밀화 되었지만 과학자들은 대사들로부터 얻은 과학지식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세기의 천문학 역시 많은 이론들이 이 책에서 따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스펀딩이 전하는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

< 프롤로그 >

우리 탐사대 대원 11명은 과학적인 훈련을 받은 현실감각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생애의 대부분을 조사와 연구로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입증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습성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매우 회의적인 태도로 출발했다. 그러나 완전한 확신과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다. 때문에 대원 중 3명은 탐사가 끝난 후 모든 것을 버리고 대사(大師:Master)들과 다시 합류하기 위해 그곳으로 떠나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는 남인도에서 2년에 걸친 탐사활동을 끝내가고 있었다.(남인도에 있다는 옛 기독교의 흔적을 찾기 위한 탐사였던 것 같다.) 그런데 어느날 에밀(가명)이라는 한 장년의 사나이를 만났다. 우연인진 모르지만 그와 자주 만나게 되었고, 그는 나에게 인도의 전설이나 신화와 관련된 여러 책들을 읽도록 권했다. 그는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였다. 인도인들이 말하는 아데프트(Adept:전수자)인 것 같았다. 하루는 들에서 산책을 하고 있을 때 상공에 비둘기 한 마리가 나타나자 자신의 누이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보낸 비둘기라고 하며 팔을 뻗으니 그 비둘기가 팔에 내려앉았다....¹⁾

스푼딩이 에밀이라는 사람과 이렇게 친해지기까지는 몇 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스펀딩이 대단한 관심을 보이자 적극적으로 가르침을 시작했는데, 에밀이란 사람은 꽃과 나무들이 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먹이를 놓고 싸우던 개들이 싸움을 멈추고 평화롭게 나눠먹게 하고, 스펀딩의 방이 안으로 잠겨있을 때도 벽을 통과해 나타나 깜짝 놀라게 했다 한다.

"이러한 일들은 필멸(mortal)의 자아가 아니라 내면의 깊은 참자아가 행하는 것이지요. 현상적인 자아를 완전히 초극하여 참자아로 하여금 말하고 일하게 하며, 참자아인 신의 위대한 사랑이 흘러나오게 해야만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의 사랑이 당신을 통하여 세상에 쏟아부어

1) 이하 모두 정신세계사 간 '초인생활'에서 인용.

지도록 당신 자신을 준비한다면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은 꾸밈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지극히 단순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일을 해 나가는 것 같았다. 그들은 사랑의 힘이 자신들을 보호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자연 만물이 자신들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친밀해질 때까지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이들 대사들은 사랑의 힘을 방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뱀이나 들짐승들도 그들을 해치지 못했다....그들은 상황이 요구하면 물위를 걷기도 하고, 불 속을 통과하기도 하고, 육체의 모습을 숨긴 상태로 먼 거리를 삼시간에 이동하는 등, 온갖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했다.

이들의 삶과 가르침은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이나 그 삶과 같다는 사실을 알았다. 죽음을 극복한 예수의 기적들이 우리에게겐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었으나 그 모든 일들이 전혀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도 깨달았다. 대사들은 음식이나 의복, 기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편세계(the Universal)에서 직접 끌어다 쓴다. 죽음까지도 극복해서 그들 대사들 중에는 5백살이 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그들의 호적을 조사해 본 결과 틀림없는 사실임을 확인했다. 인도에 거주하고 있는 이러한 대사들은 소수이며 나머지 종교인들은 이들 대사들의 가지에서 떨어진 나뭇가지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사들은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으며 실지로 준비가 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 같았다.

위와 같은 접촉 과정을 통해 미국의 탐사대와 대사들과의 3년 반에 걸친 만남이 시작된 것이다.



< 4 > 유체이탈과 성령의 씨앗

우리는 3차 탐사를 위해(대사들을 만나기 전 2차탐사를 마쳤음)인도의 한 외진 지역인 포탈에 모였으며 그곳에서 에밀 대사도 만났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탐사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지 않았고 대원 수도 말하지 않았으나 그는 우리 대원에게 필요한 숙소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그는 우리의 계획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포탈에 도착한 것은 1894년 12월 22일이었는데, 모든 준비를 완료해 놓고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다. 나는 그날 아침 에밀이 우리에게 해준 말들을 잊을 수 없다.¹⁾

"크리스마스 아침이군요. 여러분은 예수를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느님이 보낸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요? 또 여러분은 예수가 하느님과 여러분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오신 분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재자를 필요로 해야 할만큼 무섭고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하느님은 하늘에도 어디에도 안계십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의식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은 모든 인간의 의식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최고의 대사이자 스승이며, 인류를 물질세계의 구속과 제약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해방자가 탄생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위대한 영혼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신의 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신은 모든 선, 모든 지혜, 모든 진리라는 사실을 좀 더 확실히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신은 우리들 밖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도 거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

1) 이하 모두 정신세계사 간 '초인생활'에서 인용.

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신은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과 결코 떨어져 있지도 않고 떨어져 있을 수도 없는 분이라는 사실과 신은 의롭고, 공정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신은 모든 것이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진리 그 자체라는 사실을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예수 안에 오신 것입니다.....

젊은 날의 예수가 인도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래도 좋겠습니까? 물레방아를 돌리는 힘은 흐르는 물이지 정지한 물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지혜는 누군가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위대한 스승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가르침도 신의 직접적인 계시에 의해서 온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우리는 여러분이 예수에게 내려졌던 신의 계시가 모든 인간에게도 주어지기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필요한 것은 신께서 나타나실 수 있도록 각자 자기 마음을 준비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창조되었으며 너와 내가 하나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께서 행한 능력있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도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일들이 하나도 신비스러울 게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날 탐사대의 베이스기지가 될 아스마라는 마을로 향했다 한다. 그런데 에밀 대사의 권유에 의해 한 대원과 에밀 대사는 포탈에 남고 다른 대원만 아스마로 떠난다. 워낙 길이 험한 외진 지역이어서인지 에밀 대사는 자스트와 네프로(가명)라는 두 힌두인을 붙여주었으며, 그들 역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침착성과 지혜로 일행을 안내했다 한다. 차를 타고 도 닷새나 걸리는 여행을 해서 아스마에 도착했는데, 도착해 보니 에밀 대사가 벌써 그곳에 와 있었다고 한다. 아스마로 오는 길은 자신들이 온 한 길밖에 없었는데 언제 어느 길로 벌써 와 있었던 말인가? 나중에 도착한 대원의 말을 들으니 에밀 대사는 대원들이 떠난 후 닷새 되는 날까지 자기와 함께 포탈에 있었다고 한다. 닷새째 되는 날 쏘파에 누워 낮잠을 자는 줄 알았는데 점점 그 모습이 희미해지더니 완전히 모습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모든 일행이 아스마에 도착한 후 가까운 곳에 있는 마을을 방문하자고 해서 함께 출발했는데, 에밀이 붙여준 자스트라는 사람이 평상시와는 달리 좀 초조한 빛을 보여서 그 원인을 알 수 없었으며, 마을 입구에 이르러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한다. 자스트의 진짜 육체는 그 마을 입구에 누워 있었고 지금까지 자신들과 행동한 육체는 또 다른 육체였던 것이다. 두 육체는 만나 하나가 되면서 누워있던 사람이 살아 일어나는 광경을 보며 얼마나 놀랐을까를 상상해 보자. 자스트의 또 다른 육체는 2백 여명이 사는 작은 마을 주민을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곳에 누워 있었고 또 다른 육체가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치 기계적인 침착성과 냉정함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라 한다. 그의 진짜 육체는 그곳에 얼마나 오래 누워 있었는지 길게 자란 수염과 머리털에는 새가 등지를 틀었던 흔적이 있었다고 한다. 에밀 대사의 설명을 들어 보자. 컵의 물을 열게 한 후 이렇게 설명했다 한다.

"저는 물의 중앙에 있는 원자들이 얼음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때까지 원자들이 얼어붙는 상념을 품었습니다. 말하자면 상념의 힘으로 중앙에 원자들의 진동을 떨어뜨려 열게 한 후 컵에 담겨 있는 물 전체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컵의 물 뿐 아니라 호수 전체, 아니 지구 전체의 물도 열게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성도 없거니와 그렇게 했다간 그 냉기에 저 스스로도 얼어죽을 것입니다. 보편세계(the Universal)에서 발산된 상념의 에너지는 그것이 표현된 상태 그대로 나에게 되 돌아옵니다. 내가 선의로 발산한 에너지는 선의 결과를 낳지만 그렇지 못한 에너지는 악의 결과를 낳는 것이지요....성령은 아주 작은 씨앗으로 우리 안에 내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씨앗이 자라 풍성한 보리수가 되듯이 그 작은 씨앗 속에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씨앗을 사용할 줄만 안다면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젊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사들의 육체가 몇 백년을 버텨온 것은 우리 육체의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생명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이먹은 고목이라도 새순에서는 새로운 생명력이 맥동치고 있습니다. 늙음과 질병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신으로부터 주어진 원래의 생명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 분리감 때문에 공포와 외로움, 미움과 증오가 발생했고 그런 분리감과 불안, 초조가 육체

에게 늡음과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인도의 고대 스승인 싯다(Siddha)들은 이러한 생명의 원리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후세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자신들이 신의 권한을 대행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자신들이 신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지면서 온갖 불행이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 안에 있으면서 신의 능력을 빌려쓰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신으로부터 분리될 때는 물질적 육체를 가진 인간의 차원으로 추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²⁾

2) 정신세계사 간 '초인생활'에서 인용.



< 5 > 침묵의 사원과 오병이어의 기적

그들이 다음 방문한 곳은 '침묵의 사원'이라 불리는 한 불가사의한 건물이었다 한다. 이 건물은 절벽 위에 흰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사원인데, 기원전 4천년 경에 생겨난 건물이며 일부분이 파손되면 저절로 복구되는 기현상이 벌어진다고 한다. 대원들도 그 현장을 목격했다 한다. 사원이 생긴 내력은, 그곳에 있던 작은 마을에 전염병과 야생동물이 기습해서 거의 전 주민이 죽고 몇 사람만 살아남았을 때 성자들이 그곳을 방문했고, 살아남은 주민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건져준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서원을 했다고 한다. 성자들이 떠난 후에 그곳에 그런 건물이 저절로 생겨나고 주민들이 기도하고 숭배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어떤 사원을 가리키는지 자세한 예기는 없지만, 우리는 책이나 TV를 통해서 티베트의 어느 사원을 본 적은 있다. 절벽 위에 흰 색으로 빛나는 건물이 그곳 티베트에는 분명 있는 것이다. 에밀 대사는 그곳 침묵의 사원에서 침묵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말한다.

"신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신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외면에서는 그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우리들의 내면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내면 깊은 곳에서 아버지와 은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모든 소망을 이루는 힘이 자신을 통하여 흘러넘치는 것을 체험합니다. 예수는 자신이 아버지와 이런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자주 말했습니다....신의 현현(顯現) 양식은 의식을 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인간의 생각에서 신의 생각으로 사고의 주체가 전환될 때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신은 모든 것 속에 편재해 계십니다. 그 안에 머물지 않고 떨어져 나와 홀로 있음을 느낄 때 인간에겐 질병과 죽음이 찾아

웁니다. 침묵의 사원에 들어가 자신을 관찰하면 자신의 적은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개아(個我), 즉 떨어져 나온 자신을 부정하고 겨자씨 같이 작지만 그리스도의 자아를 발견해서 그것에 정착해야 합니다...."

< 오병이어(五餅二魚)의 기적 >

그들이 침묵의 사원에서 베이스기지인 아스마로 돌아오니 그 마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술렁거리고 있었다. 그곳에서 약 360키로 떨어져 있는 '치유의 사원'에 순례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다. 에밀 대사의 권유에 따라 탐사대도 순례자들의 대열에 끼기로 했다. 도중에 사막지대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데 자스트와 네프로가 도왔다.

처음 며칠은 순조로운 여행이 계속되었으나 여름으로 접어드는 계절이었기 때문에 갑작스런 폭풍우를 만났다. 뿐만 아니라 강물이 불어나 강물이 본래처럼 줄어들 때까지는 며칠을 그곳에서 기다려야 하는데, 식량이 문제였다. 폭풍우를 만나리라는 예상은 못했기 때문이다. 모두 근심으로 밤을 새운 다음날, 에밀 대사가 탐사대 앞에서 밀알을 꺼내 땅에 심는다. 밀알들은 금방 파릇파릇한 싹으로 돌아나더니 쑥쑥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밀알들이 영그는 것 아닌가?!! 탐사대는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흥분해 있으면서도 그 밀알들을 비비고 가루를 빵아 빵을 만들어 보았다 한다. 빵을 먹으면서 탐사대는 그 밀들이 수개월 걸려 수확된 다른 밀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음을 확인했다 한다. 뿐만 아니라 에밀 대사는 3백 명에 이르는 순례자들을 먹이기 위해 빵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의 손에서 하나의 커다랗고 먹음직스런 빵이 만들어진 다음, 대원 중의 한 사람이 그것을 받아 접시에 담자 그의 손에는 또 다른 빵이 만들어져 있어서 순례자 모두가 먹고도 남을만큼의 식량이 마련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에밀 대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엘리야가 과부의 기름병을 채워준 것은 어느 다른 곳에 있는 기름을 갖다가 채워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있었다,'구요? 현상화될 모든 것들은 이미 보편적인(보통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뜻) 실제 세계에서 무형의 질료 상태로 존재합니다....말씀이란 마음의 구체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께서 마

음 속으로 어떤 정신적인 형태를 그리자 그 형태 속으로 실체세계의 질료가 흘러들어왔고, 그 결과 신께서 마음 속에 그린 그대로 현실세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무리 전능한 창조자라도 자신의 생각과 소원을 질서있게 정리해서 '그것이 있으라.'고 명확히 말해야만 합니다....처음에는 필요를 느끼고, 그 다음에는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서 의식 속에서 그것을 확고히 한 다음,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며, '신이여,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했던 예수의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¹⁾

< 물 위를 걷다 >

온 길을 되돌아가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미 중간 정도의 길을 왔기 때문에 되돌아갈 수는 없다는 의견이 우세해서 강물이 줄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식량걱정은 안해도 되지 않는가? 그런데 다음날 자고 나니 처음 보는 낯선 사람 다섯을 탐사대에게 소개한다. 그들은 치유의 사원을 이미 방문하고 돌아가는 중인데 조금 아까 강을 건너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타고 온 배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에밀 대사가 그들 다섯과 탐사대원 일부를 데리고 강을 건너겠다고 한다. 물 위를 걸어서 건넌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탐사대원도 주저했으나 에밀과 자스트, 그리고 네프로 뿐만 아니라 강을 건너온 다섯의 또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건넌다는 설득에 용기를 얻어 열두 사람이 함께 강을 건너기로 한다.

폭풍우로 불어난 강물은 거센 물살과 거품을 뿜으며 흘러가는데, 서로 손을 잡은 열두 사람은 함께 강물 위로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것이다!!.....저자 스폴딩은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한다. 그들은 마치 마른 땅을 밟고 가듯 물을 밟고 강을 건넌 것이다. 자스트와 네프로는 다시 강을 건너와 남아있던 대원과 3백명의 순례자들을 데리고 강을 거슬러 강폭이 좁은 계곡까지 올라가자고 한다.

모든 순례자들이 치유의 사원에 도착할 때까지 64일이 걸렸는데, 에밀 대사가 생산한 빵은 넉넉한 식량으로 공급되었다 한다.

1) 이 책의 22장까지 모두 정신세계사 간 '초인생활'에서 인용되었음.

미안합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교보문고로 링크됩니다. 검색창에 책명을 입력하면 즉시구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